Clinical Outcomes of Echogenic Fetal Lung Mass

정진훈*、김문영、양재혁、류현미、안현경、송미진†、조정연†、이영호†

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, 진단방사선과†

목적: 산전에 진찰된 태아의 선천성 폐 종양 중 선천성 낭성선종양폐(congenital cystic adenomatoid malformation: CCAM)와 폐분리증(pulmonary sequestration: PS)의 초음파 소견과 임상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.

연구배상 및 방법: 1996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성균관 대학교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의 산전 초음파 검사상에서 발견된 태아의 선천성 낭성선종양폐 44예와 폐분리증 18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. 태아의 초음파 필름을 분석하여 종양 발견 당시의 제태연령, 종양의 크기 및 위치, 낭종의 크기, 종격동 이동과 태아 수종의 유무, 다른 기관의 선천성 기형의 동반 유무 등을 확인 하였다. 병행한 색도플러 초음파 검사에서 대동맥에서 기시하는 이상혈관이 확인되는 고 에코의 폐종양은 폐분리증으로 진단하였다. 선천성 낭성선종양폐은 초음파상 낭종의 크기에 따른 Stocker등의 분류에 따라 제 1형 (대낭성), 제 2형 (중낭성), 제 3형 (소낭성)으로 분류하였다. 초음파 추적검사상 크기 변화를 조사하여 출생 후 신생아의 흉부 전산화단층촬영(CT) 필름 소견과 비교하였다.

결과: 연구기간 중 선천성 낭성선종양폐 44예와 폐분리증 18예, 총 62예가 산전진단 되었으며, 이중 임신중절술을 시행하였던 경우는 10예가 있었고, 11예에서는 추적관찰이 되지 않았었다. 본원에서 분만한 41예 모두 신생아 호흡 상태는 양호 하였으며 31예의 신생아에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. 처음 진단 시 평균 임신 주수는 22.4±2.7주 (14.5~34주)이었으며, 진단 시 평균 종양의 크기는 35X30X34 mm 이었다. 평균 초음파 추적횟수는 3.2 (1.0~6.0)회 이었고, 종격동 이동은 82.3% (51/62), 양수과다증은 11.3%(7/62), 태아수종은 6.5%(4/62)에서 발견 되었다. 3예 (4.8%)에서 다른 기관의 선천성 기형의 동반되었다. 44예의 선천성 낭성선종양폐에서 제 3형이 21예 (47.7%)로 가장 많았으며, 18예의 폐분리증에서 병변의 위치는 좌하엽에서 11예(61.1%)로 가장 많이 관찰 되었다. 출생 후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던 31예 중 종양의 소실을 보인 예는 41.9% (13/31), 처음 진단시 크기에 비해 50% 미만으로 감소 한 예는 38.7% (12/31), 크기 변화가 없었던 예는 9.7% (3/31) 이었고, 크기가 150% 이상 증가 했던 경우는 9.7% (3/31) 이었다. 출생 후 CT에서 종양의 소실은 6.4% (2/31)만이 있었고, 50% 미만으로 감소한 예는 32.3% (10/31), 크기변화가 없었던 경우는 41.9%(13/31), 처음 진단 당시에 비해 150% 이상 크기가 증가 했던 경우는 19.4%(6/31) 이었다.

결론: 태아의 선천성 폐 종양이 산전에 진단된 경우, 초음파 추적 관찰 시 종양의 소실이 있어도 반드시 출생 후 CT 등으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. 또 동반된 기형이 없거나 태아수종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예후는 양호함을 부모와의 상담 시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태아희생을 줄이는데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.

중심단어 : 선천성 폐종양, 선천성 낭성선종양폐, 폐분리증, 산전 진단, 초음파

- 구연 (0)
- 발표자의 연락처

이름 : 정 진훈
소속: 성균관 대학교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 주산기학 교실
전화 및 팩스번호 : 02-2000-7175 fax) 02-2000-7183
011-776-3458

- 필요장비 : Beam Projector